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33호

학교운동부에서 클럽팀으로의 전환

학교 야구부 줄줄이 해단… 스포츠클럽 전환 가속화

이정철 스포츠한국 기자

학생선수 인권 가이드라인

'학생선수 인권 보호하는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 만든다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 지도자 강습회

'스포츠인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배승열 점프볼 기자

스포츠 성차별

여성 회원은 안 받습니다

노현주 매경골프포위민 기자

4년 전 '져주기 경기' 실격 감독, 재선임 논란

아시아선수권 고의 패배 실격 감독에 또 지휘봉 맡긴 핸드볼협회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학교 야구부 줄줄이 해단… 스포츠클럽 전환 가속화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022.08.23

스포츠클럽법이 발효된 지 두 달여, 학교 야구부들이 전환점을 맞았다. 전국 각지에서 야구부들이 해단 수순을 밟고 있다.

스포츠클럽법은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운동부를 클럽팀으로 전환해 팀 중심의 운영으로 체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변화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 수급의 어려움에서 비롯됐다. 선수 수급이 어려워지자, 야구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 운동부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 가능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엘리트 체육의 단점 등을 보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으로 바꿔가자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의 클럽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여러 학교 운동부들이 해단 후 클럽팀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인기종목 중 하나인 야구부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베이스볼 클럽'으로 새롭게 단장 중이다.
야구부들이 대부분 몰려 있는 수도권 팀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80여 개의 고교 야구부 중 30여 개가 수도권 소재 학교팀이기 때문이다.

김종우 서울체육고등학교 교감은 "수도권에서도 클럽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기존 학교팀들의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학교 운동부 문제로 꼽히고 있는 체벌, 인권 문제와 특정 지역 소재의 학교가 학생선수들을 독점하는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교감은 "서울의 몇몇 야구 명문 학교들은 정통성 때문에 클럽화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학교들 역시 클럽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파주시 율곡고등학교 야구부가 '해단 및 클럽팀 전환'에 대해 교내 안전체육보건부의 가결 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 있다. 잇따라 남양주시 연세중학교 야구부가 해단했다. 이밖에도 앞서 여주시 여강중학교, 이천시 모가중학교가 야구부 클럽화를 승인했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클럽화는 지방보다 속도가 더디다. 김 교감은 "이미 지방에서는 클럽화가 활발하다. 부산, 울산 등 광역 시·도 단위 지역의 학교 팀들은 학생선수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클럽화한 곳이 많다"면서 지방에서 클럽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풀어가야 할 과제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지역 사정에 따라 클럽팀에 대한 지원 여건이 다르고 법안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 교감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학교체육진흥회 등이 다 같이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전문체육이 활성화되고 대중의 관심이 커진다. 나아가 전문 학생선수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는 학교 야구부 대신 클럽팀이 많아지면, 엘리트 체육이 힘을 잃게 되고 프로야구의 젖줄이기도 한 고교야구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운동부의 클럽화 현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자료 출처: http://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5302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2022.08.18

‘학생선수 인권 보호하는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함께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원대학 126곳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18일 “가이드라인 지침 제작을 위한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10월 대학이 준수해야 할 인권침해 예방 설명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침해유형별 행동규범 등을 담은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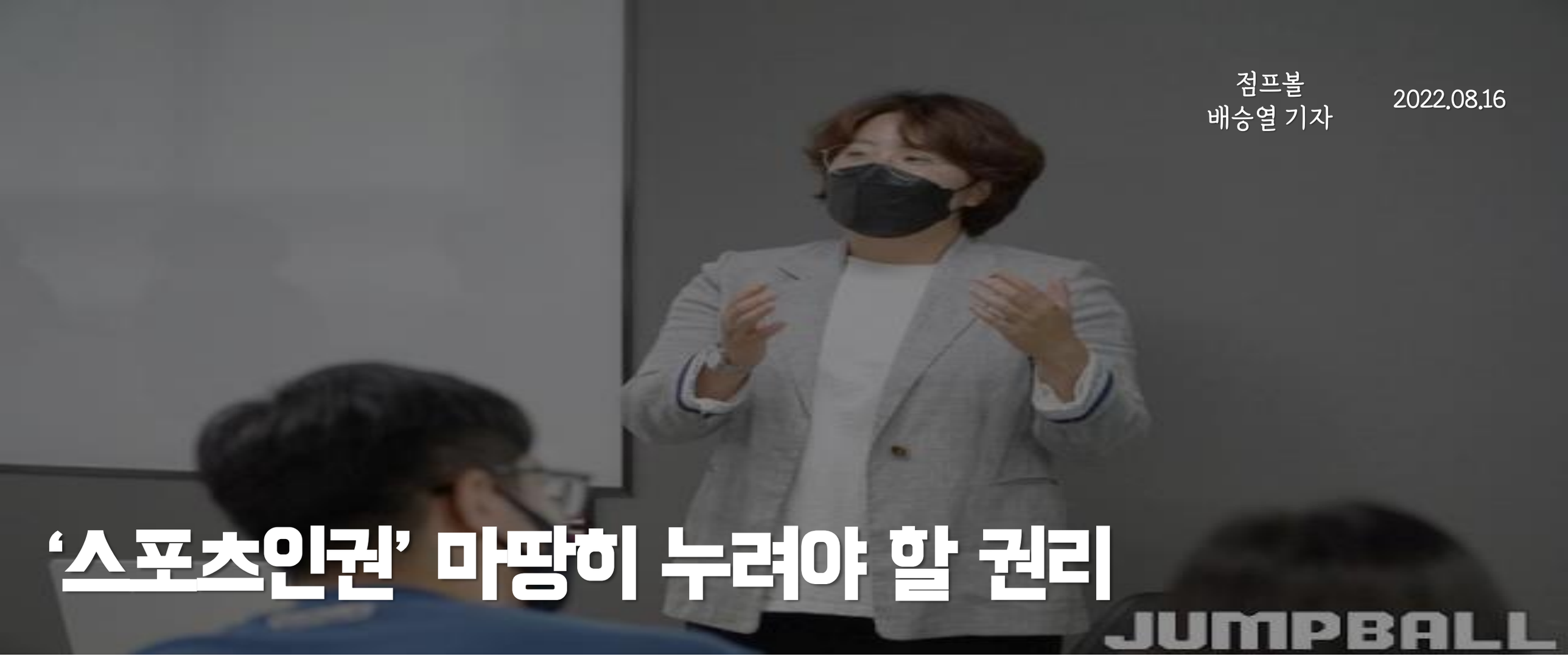
이번 지침에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교 역도부 코치 폭행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학 내 기숙사 거주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10일 자로‘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운동부 내에서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회원대학과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운동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도 시작한다. 우선 2022학년도 2학기 중 총 60회에 걸쳐 1, 2학년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 선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력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32428632&mediaCodeNo=258



‘스포츠인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점프볼
배승열 기자

2022.08.16

스포츠인권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스마트 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i-League, 이하 i-리그) 지도자 강습회'를 열렸다.

이번 강습회는 i-리그에 참가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부산, 창원 지역의 클럽 지도자 및 관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문 강사들이 준비한 스포츠안전, 지도자 역량 강화, 스포츠인권 등을 교육받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 장유라 강사가 준비한 '스포츠폭력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은 지도자뿐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필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장유라 강사는 "성적지상주의, 고통을 통한 결과, 만연한 폭력 용인 문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 신체·물리적 뿐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금품갈취 폭력 등 허용될 수 없다"고 교육을 시작했다.

어어 "스포츠폭력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뿐 아니라 선수와 선수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 강사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펭귄효과'와 '성인지 감수성'이다.

펭귄효과는 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를 내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잇따라 바다에 뛰어드는 습성에서 비롯된 용어다.

이 효과를 인용한 장 강사는 "스포츠폭력을 목격해도 '말해도 소용없겠지'라는 마음에 모른 척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아픈 사람만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함께 스포츠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해,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도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인권,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자료 출처: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65&aid=0000234869

매경골프포위민
노현주 기자

2022.08.19

여성 회원은 안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골프 회원권의 거래 현황과 대놓고 성 차별을 하는 회원권 실태에 대해 짚어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한 골프업계.

국내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지난 2년간 5000만 원은 기본, 골프장과 회원권 형태에 따라 1억 원 이상 오른 곳도 있을 정도로 훈풍이 불었다. 올해 들어서는 소폭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
동아회원권거래소 박천주 팀장은 “실제 구매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30대가 회원권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회원권 가격은 계속 올랐다. 그러다 6월 이후 신장세가 주춤했다. 시기적으로 여름이 비수기인 데다 엔데믹으로 인한 해외 골프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물론 양극화 현상에 따라 고급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소폭 오르거나 유지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에는 숙박을 겸할 수 있는 골프 회원권이 인기를 끌어 비수도권 골프장의 회원권 판매가 늘었다. 또 주중 회원권은 여전히 여성 골퍼의 사랑을 받았으며, 2년간 여성의 구매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중 회원권은 말 그대로 주중에만 부킹할 수 있다. 재테크나 품위 유지를 위한 정회원권과 달리 오로지 골프를 즐기려는 목적이 강한 상품이다. 최근 골프웨어나 용품 시장에서 여성 골퍼의 구매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회원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여성 골퍼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먼파워가 거세지는 와중에도 여성을 배제하는 골프장 역시 존재한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회원 가입을 막은 경기 용인의 G골프장과 K골프장, H골프장. 이들은 정회원 가입 자격을 ‘만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으로 한정했다. 이 중 한 곳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정회원일 경우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거나 평일 회원이 될 수 는 있지만 조건이 달렸다. 주말에는 여성 혼자 예약할 수 없고 이용 요금도 2배 이상 더 내야 한다는 것.
급기야 골프장 두 곳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성의 골프클럽 가입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 라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개선 권고에 ‘변화 움직임’ 있을까

문제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30~40년 전 개장 당시의 모집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화근이 됐다. 개선 권고를 받은 골프장들은 당시 골프장 가입자와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성은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해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점, 비회원도 회원 예약 잔여분이 있을 때 성별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이 다른 방식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해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골프장의 주장대로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지만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개장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대가 변했으니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H골프장은 여성을 위한 라커룸 등 수용시설이 적어 여성 골퍼들이 방문 시 바구니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예 ‘수용하지 않는 환경’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A씨는 “2010년대 들어 대부분 통합 회원권이 됐지만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회원권을 구분해 거래하는 곳이 많다. 남성 회원권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여성 회원권은 1억 원 이상 더 비싸진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남성과 여성 회원권이 구분 거래되더라도 혜택은 동일한 곳이 많다. 다만 여성의 입회를 막고 혜택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2/08/735191/

아시아선수권 고의 패배 실격 감독에 또 지휘봉 맡긴 핸드볼협회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2022.08.22

2018년 요르단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청소년 남자핸드볼 선수권 대회는 우리나라 대표팀에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별리그 이라크전에 '져주기 경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회 도중 실격됐다.
한국, 이라크, 인도가 C조에 편성됐는데 한국과 이라크는 이미 약체 인도를 꺾고 조 1위 자리를 놓고 만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 1위가 되면 결선리그에서 바레인, 일본 등 까다로운 팀들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2위를 하면 대만 등 비교적 수월한 대진을 받게 돼 한국과 이라크는 서로 조 2위를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결국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은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를 중단시키고, 두 팀을 실격 처리했다. 이미 2패를 당했던 인도가 어부지리로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그때 한국 사령탑을 맡았던 A 감독은 귀국 후 대한핸드볼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내 언론에서도 아시아 18세 이하(U-18) 남자 핸드볼선수권 대회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고의 패배 의혹에 따른 실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그런데 20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막한 제9회 아시아 청소년 남자핸드볼선수권 대회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바로 4년 전 같은 대회에서 '져주기 경기'로 실격당했던 A 감독이 또 선임됐다.
A 감독은 현재 대한핸드볼협회 운영본부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징계 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고등학생 선수들을 인솔해 나간 국제 대회에서 '고의 패배' 사유로 실격당한 지도자가 같은 대회 바로 다음 차수의 감독을 다시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핸드볼협회 측은 "현재 A 전무이사가 대한체육회 전임지도자이기도 한데 그간 대한체육회 전임지도자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겸임해왔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번 대회 감독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년 전 일이라 시간도 많이 흐른데다 당시 금품이 오간 '승부 조작'이라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는 취지로 했던 일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핸드볼협회가 대한체육회에 A 감독을 전임지도자로 추천한 시기가 2018년 아시아선수권 실격 이후였다는 점에서 "A 감독이 대한체육회 전임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당연직으로 맡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시아선수권 대회 도중 '져주기 경기'를 이유로 실격당한 지도자를 대한체육회 전임지도자로 추천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 감독은 2018년 대회 실격 이후 대한핸드볼협회 전무이사가 됐고,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후 열린 9월 아시아 여자선수권과 12월 세계 여자선수권에서도 직접 감독을 역임했으며 이번 아시아 남자 청소년선수권 지휘봉까지 잡았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2008000007?input=1195m

주간 스포츠 소식

[잠시만요] "여교사가 여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력 엄청나, 체육도 마찬가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161540546572

[경남소식] 도, 내년 생활체육시설 국비 129억 확보…'전국 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062900052?input=1195m

“경기도체육대회서도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4779604

원주시,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착공…2024년 7월 준공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2_0001985622&cID=10805&pID=10800

전북도, 순창·부안 체육 시설 확충 사업비 75억원 확보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2084900055?input=1195m

인천 연수구, 산하 체육회 감사…"도덕적 해이 심각"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059300065?input=1195m

KUSF, 2023학년도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발간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8221126013&sec_id=530101&pt=nv

‘평창패럴림픽 유산’ 반다비체육센터는 4년만에 개소,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산은 8년째 표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500081&wlog_tag3=naver

광주서 27~28일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결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3_0001987835&cID=10201&pID=102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